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본격 가동

도교육청, 위원·업무담당자 대상 역량 강화 연수 개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오는 3월 본격 가동된다. 19일 전북도교육청은 전주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에서 선발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위원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위원 및 업무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있어서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관계회복 및 회복을 위한 생활교육, 학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안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안내 등이다. 특히 학교폭력 관련 조치의 객관성,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례중심 연수로 진행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운영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의 교육적 회복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보다 전



전북도교육청은 19일 전주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에서 선발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1/3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하고 해당 시·군의 청소년 보호 및 학교폭력 업무 담당 공무원, 학교폭력 사안 처리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교원,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의사, 청소년 단체 전문가 등 중에서 학교(기

관)장 추천 및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선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의 업무경감과 관련 위원회 전문성 강화로 각종 분쟁 및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학교폭력이 교육적으로 해결되고, 학생 간 관계회복을 위한 학교 역량이 길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세라젬-예수병원, 업무협약 체결

신의료기기·기존 의료기기관련 임상 진행·의료기기 공동개발 등 협력키로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19일 예수병원 설대위기념관에서 세라젬(대표이사 이재근), 예수병원(병원장 김철승)과 ‘신의료기기 개발 및 임상연구’를 골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전주대 류두현 대외부총장과 세라젬 이재근 대표이사, 예수병원 김철승 병원장 등 세 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세 기관은 이날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신 의료기기 및 기존 의료기기관련 임상 진행 ▲국정사업 기조에 맞춘 첨단의료기기 개발 모색 및 아이디어 공유 ▲의료기기 육성사업 및 공동개발 사업 참여 ▲연구를 위한 세미나 진행 등에서 협력하게 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정부는 2025년까지 4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경제 전문가들도 그 성장률을 4%대로 예측하며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다. 전주대와 세라젬, 예수병원은 이



전주대학교는 19일 예수병원 설대위기념관에서 세라젬, 예수병원과 ‘신의료기기 개발 및 임상연구’를 골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날 협약을 통해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반 신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임상연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류두현 대외부총장은 “이번 협약을 투자할 예정이며, 경제 전문가들도 그 성장률을 4%대로 예측하며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다. 전주대와 세라젬, 예수병원은 이

협력을 통해서 신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임상연구 기반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세라젬-예수병원은 ‘세라젬 마스터 V3 척추온열의료기기’ 임상실험에 공동으로 참여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4일에는 세라젬의 기증으로 예수병원에 세라젬 체험센터가 개설됐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모델학교 14교 모집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위해 학교당 1200만원 예산 지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을 위해 ‘과학실 안전 모델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14개 교육지원청별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과학실 안전 모델을 구축해 과학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수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도내 초·중·고 14교

(시·군별 1교)를 선정하고 학교당 1,2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한다. 선정 자격은 과학실 안전 관리 강화 및 탐구·실험수업 활성화 의지를 가진 학교로 향후 과학안전 관련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희망학교는 오는 28일까지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3월 중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운영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년이다.

선정된 학교는 과학실 안전 환경 구축, 과학 안전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역 과학실 안전 거점학교 역할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과학실 안전 모델을 개발 적용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해 나갈 것”이라며 “안전한 과학교육 환경 조성으로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수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의사국가시험 전원 합격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어성국)이 최근 발표된 제64회 의사국가시험에서 졸업예정자 46명 전원이 합격했다고 19일 밝혔다. 2018년 합격률 100%를 달성한 이후 3년 연속이다. 전북대는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그리고 2014년에도 100% 합격을 이뤄냈고, 지난해에는 전국 수석을 배출하는 등 국내 최고의 수의사 양성 요람임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총점 350점 만점에 대학 평균 293.2로 전국 수의과대학 최고 성적을 거뒀다. 또한 김택현, 이상규 학생이 320점으로 상위 15등 이내 드는 등 개인 성과 면에서도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는 매년 이어지는 전북대 수의대의 우수한 성적은 수의대 교수진의 열정과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학생들의 열정이 맞물리며 시너지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어성국 수의대학장은 “이같은 우수한 합격률은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교육과 그동안 강의 환경 개선을 위한 대학 차원의 수의학 교육 인증 사업의 적극적 지원, 동물의료센터의 집중적인 임상실습 등 다양한 교육환경 개선 노력의 결과”라며 “학생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전국 최고의 수의사 양성 요람이라는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글로벌 융복합 설계 프로젝트 8개월 대장정 돌입

발리서 열린 글로벌 캡스톤디자인 캠프서 국내 10개·해외 4개 대학 19개 연합팀 첫 만남 가져

“아시아 연합대학 학생들과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창의적인 공학설계 작품 만들어요.”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 공학교육 혁신거점센터와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2020 글로벌 융복합 설계 프로젝트(2020 i-CAPS)’가 최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글로벌 캡스톤디자인 캠프’를 통해 8개월 간의 대장정에 본격 돌입했다고 전했다. ‘i-CAPS’는 아시아 우수 대학의 학생들과 국내 대학 학생들이 국제연합팀을 구성해 7~8개월 동안 머리를 맞대 우수한 공학설계 작품을 직접 제작해보는 전북대만의 선도적인 글로벌 교육프로그램이다. 2013년에 시작해 올해 8기 학생들을 선발, 운영 중에 있다. 지난 2월 3일부터 발리에서 열린 이번 캠프는 전북대 등 국내 10개 대학(광운대, 광주대, 군산대, 동신대, 목포대, 순천향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과 해외 4개 대학(인도네시아 반둥공과대학, 말레이시아 케방산국립대학, 대만 천공국립대학, 싱가포르 난양공



전북대학교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와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2020 글로벌 융복합 설계 프로젝트(2020 i-CAPS)’가 최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글로벌 캡스톤디자인 캠프’를 통해 8개월 간의 대장정에 본격 돌입했다.

과대학) 학생 90여명이 19개 연합팀을 구성, 첫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올해 참여 학생들은 ‘Smart Toy’라는 주제로 앞으로 8개월 동안 진행할 아이디어를 구상해 토론하고, 지도교수의 피드백을 통해 작품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앞으로 참가팀은 2회의 중간보고와 2차 캠프를 통해 작품 제작 및 발표를 진행 할 예정이다. 이일재 전북대 공학교육혁신거점센

터장은 “i-CAPS는 2013년부터 우리대학이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제적 장기 협력 프로젝트로 매년 국제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우리 팀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국가 간 융합이 참여 학생들의 창의성을 더욱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적 차이를 극복해 국제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우수한 엔지니어를 양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